

태평양 무형유산 가시성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결의 제4차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제4차 태평양 지역 회의 참가자들 © ICHCAP

2013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가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쿡 제도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회의로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가 주최하고 바누아투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회의는 패트릭 크로비 바누아투 내무부 장관의 환영사로 막을 올렸다. 기조 발제에서는 이삼열 센터 사무총장이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이 가져온 결과의 긍정적 추이를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무형유산 보호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리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제1세션은 태평양 6개국(피지, 미크

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통가, 바누아투, 쿡 제도)의 협약 이행과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 활동에 관한 보고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날 열린 제2세션에서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무형유산 가시성 증진 활동을 소개하였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다카하시 아카츠키가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바누아투문화센터 아롱 마르셀린 소장이 태평양박물관협회 활동 전반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세션에 마련된 좌담회에서는 태평양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먼저, 차보영 센터 지식출판팀장이 센터의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 사업을 소개하고, 태평양 지역의 전통 지식에 관한 도서를 발간하는 공동 사업을 제안하였다. 바누

아투 대표는 이 사업이 바누아투에서 추진 중인 전통 지식 기록화 활동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고, 센터 제안을 지지하였다. 피지, 파푸아뉴기니, 통가, 미크로네시아 대표 역시 출판 사업을 통해 각국 무형유산 가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동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카하시 아카츠키 담당관은 이 사업을 통해 발간된 도서는 향후 태평양 무형유산 분야에서 독보적인 소개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센터는 올해까지 사업 참가국이 태스크 포스(TF)를 조직하여 원고 작성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원고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다카하시 아카츠키 담당관과 센터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에 발간된 태평양 무형유산 안내 브로슈어 또한 연중 업데이트하여 배포하기로 동의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바누아투국립 박물관을 방문하여 유네스코 등재 종목인 바누아투 모래그림 연행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이 마타 추장 영지를 답사하여 바누아투 지역의 역사적, 정신적, 도덕적 면모를 두루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3일간의 일정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회의는 태평양 각국 대표가 모여 무형유산 도서 출판 사업 추진을 결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센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고, 제5차 회의에서는 공동 출판 사업의 추진 내용을 점검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제4차 회의 결과는 센터 홈페이지(www.ichcap.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세민 (홍보출판팀)



중앙아시아 목록작성 지원 3차년도 로드맵 채택

제4차 중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회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



제4차 중앙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회의 © ICHCAP

제4차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유산 협력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5월 21일~2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되었다. 센터가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와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무형유산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유네스코사무소(알마티, 타슈켄트) 및 카테고리 2기구 대표, 그리고 몽골, 한국 전문가 등 20여명에 이르는 참가자가 모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지역 무형유산 보호 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툴을 활용한 무형유산 목록작성 3개년 사업'의 지난 한 해 동안 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국가별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무형유산 홈페이지 제작 등 차기년도 사업 과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2차년도에 국가별로 준비한 데이터베이스와 센터에서 작업한 모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공유한 결과, 향후 메타데이터 및 분류기준 등을 상호 보완,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실시한 무형유산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수집된 무형유산 정보와 기록물들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를 통해 관리될 것이다.

올해 회의는 3개년도 사업의 마지막 방향을 확립하는 자리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참가자들은 '3차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액션플랜(2013)'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짐하였다. 이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국가별 무형유산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가

동하기로 하고, 또한 사업의 결과물을 포함하여 국가 무형유산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별 무형유산 홈페이지 제작을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3개년 사업 이후의 협력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다음 단계를 목록 해설집 발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기로 하고, 다음 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만나 사업 성과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미리 (연구정보팀)

CONTENTS

ICH Issues	01
Director's Note	02
Expert Remarks	03
Windows to ICH	04
Field Report	08
Inventory-Making Efforts	10
ICHCAP Inside	12
Safeguarding Pioneers	13
Understanding ICH	14
ICH News Briefs	15



Director's Note

태평양의 전통 지식과 지속가능한 발전

우리는 가끔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하고 있는 무형유산이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지난 4월 바누아투에서 개최되었던 태평양 소지역회의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이 발표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태평양 지역의 전통 지식과 관습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를 위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누아투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무형유산 현장에 조사자들을 파견해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문화유산 관리에 공동체의 참여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조사자들은 각 지역에서 대대로 전해지는 중요 의례와 관습과 같은 문화유산을 보호, 전승하기 위해 녹음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은 전통 지식의 현대적인 사용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알리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의 산란기 이동 경로나 집합 장소 또는 어류와 조류의 여행 주기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그곳의 자연 자원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는 서구의 과학 지식이 반드시 자신들의 전통 지식보다 우수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체의 전통 한방 시술이나, 손으로 하는 처치, 또는 나무 열매 등을 사용한 치료 방식 등은 효과를 인정받아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태평양 지역 특유의 지식과 전통 관습은 생태계 문제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의 중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형유산에 스며들어 있는 선조들의 지식과 전통 사회의 가치체계는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물 부족이나 사막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누아투 전통 공연 연행자들과 이삼열 사무총장 © ICHCAP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스테판 M. 크라우스(Stefan M. Krause)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민족인류학자

□ 크로네시아 연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에서 실시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프로그램은 압(Yap)제도를 시작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압 제도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 중 최초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프로그램 시행이 지정된 나라이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압 제도 전역에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이는 압 제도가 지닌 무형유산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무형유산에 대한 논의에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압 제도의 무형유산의 관리 운영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 때, 유네스코와 필자와 같은 다른 외부 조력자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압 제도의 시민들은 무형유산이 지역차원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무형유산 관리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무형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무형유산의 개념도 재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방식들 중 하나가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압 제도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다. 인근 팔라우 공화국은 최근 그들의 해양 및 육상 환경을 국제 관광시장에서 전망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자원으로 보호해오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성공을 접한 일부 압 제도 사람들은 무형유산이 그들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세계에 홍보하고 위협에 처할지도 모를 그들의 무형유산 종목을 보호하는 데에 지역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완벽한 상장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압 제도의 많은 사람들은 무형유산의 개념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재 담론 속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압 제도가 이미 문화 보존을 장려하고 제도화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을 주민들은 압의 날(Yap Day) 행사를 앞두고 여러 달 동안 춤이나 다



압 제도 여성들의 좌식 공연 © Stefan Krause

른 공연 연습에 참여하는 등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압의 날 행사는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압의 문화적 전통을 소개해온 국가적 차원의 전통적인 연례행사로, 이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생생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아주 최근에 조직된 연례 축제인 카누축제와 귀향환영회 역시 며칠에 걸쳐 진행되며 그 기간 동안 문화유산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모든 지역 차원의 제도와 행사들은 무형유산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무형유산제도 운영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계기로, 압 제도의 공동체들은 여러 행사 기간에 소개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 종목들을 발굴, 지정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을 좀 더 잘 갖추게 될 것이다.

압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지켜보며, 무형유산 자문위원으로서 무형유산이란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관심을 갖는 문화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일상생활의 관습, 지식, 표현을 문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이는 결국 우리가 무형유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명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 딱 들어맞는 요소로 무형유산을 개념화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와 의미가 화석화되지 않도록 이들 문화적 표현들의 살아 움직이는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형유산이 변화한다는 점을 인지할 때 우리는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한 문화의 각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능력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사람과 운영과정에 모두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문화관습과 전승을 관리하는 지역 차원의 운영 과정에 무형유산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지원하고자하는 생산적인 과정, 즉 지속적인 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개방적이고 완전한 참여 방식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운영 과정에 있어 지역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포괄적 협력은 절차를 민주화하고 건전한 참여를 장려하며 미래의 무형유산 보호 및 보존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지원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지원한다는 것은 압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바로 그들의 무형유산의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그와 동시에 이렇듯 외부세계가 그들의 문화유산을 인정했다는 것은, 이미 약속된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더욱 격렬하고 반성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는 시작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가 운영과정에 대한 완전한 관리권을 소유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압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 성공적이고 동시에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코코넛 껍질 벗기기 경연 대회(사탄 브래드 홀랜드)



무형유산과 전통 건축

Windows to ICH는 매 호마다 특정주제와 관련된 아태지역 무형유산을 소개한다. 이번호에서는 전통 건축에 관한 지식과 공예를 보여주는 각국의 건축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피지, 필리핀, 몽골, 아제르바이잔의 사례를 통해 각국의 독특한 자연과 생활양식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전통 건축을 만나 볼 수 있다.

피지 전통 건축 부레(Bure)

시미오네 세푸드레드르(Simione Sevuiredre) 이타우카이 언어문화연구소 수석행정관

피지에는 3가지의 전통 가옥 양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라우시나(rausina)로 비탈레부(Vitalevu) 주도의 내륙 부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축조되는 가옥 양식이었다. 이 양식은 기둥을 하나만 세워 지붕 모양을 원추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두 번째는 쿠부로로(kubulolo)라고 불리는 것으로 라우 군도의 외곽 섬들에서 주로 건축되는 양식이다. 이 가옥의 특징은 타원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폴리네시아의 통가와 사모아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이 두 섬은 라우 군도와 무역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은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바세마세마(vasemasema)양식이다. 이 양식은 지붕을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가장 큰 특징이며 비탈레부와 바누아레부(Vanualevu)의 주요 섬들의 마을과 연안부족들에게서 주로 발견된다.

부레(bure, 피지 원주민의 전통 가옥, 필자 주)는 갈대, 견고한 목재 기둥, 돌, 대나무, 밀짚으로 꼰 밧줄 그리고 양치류 식물과 같은 자연재료로 짓는다.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실내는 시원하도록 구조적으로 훌륭하게 지어진 집이다. 날씨가 추워도 실내의 분위기는 항상 따뜻하고 쾌적하다.

기독교가 유입되기 이전, 전통 피지 사회에는 마타이사우(mataisau)로 알려진 수공업자 계층이 존재했다. 그들은 통치 지배자 근처에 거주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통치자의 부레와 이중선체 카누 그리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술과 같은 진흙 용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특별한 전투용 곤봉이나 식사용 포크를 만들기도 하였다. 각 전통 조직체들은 그들의 수공업자 계층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수공업자들은 로콜라(Rokola)라고 불리는 고대의 영웅을 같은 조상으로 하는 다른 유사한 수공업자들과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대규모 부레 건축이 시작되면 거기에 쓰일 각 기둥은 인간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그 당시 장인들은 지배자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희생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 죽음이야말로 저승으로 가는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러한 장대한 건축유적지는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나 마냐(Na Mana)라고 불리는 부레가 르와(Rewa)에 위치하고 있는데 르와는 비탈레부 동부 주도의 부르바사가(Burebasaga) 연맹체의 최고 부족장의 대저택이다. 이 유적지는 부족민들의 경의와 존중의 표시로 행동을 삼가거나 접근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타부(tabu, 영어의 taboo가 이 말에서 기원하였다. 필자주)가 유지되고 있다.

일단 부레가 완성이 되면 조리용 난로를 실내에 설치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피워 올리면 목재와 이영을 훈증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은 없고 그저 통로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외부의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종종 깔개를 깔았다.

주거 공간 안에 연기를 피우는 것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결코 호의적인 인상을 주지 않았다. 비록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들은 이를 비위생적이라고 오해하여 조리용 난로를 집 외부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의 지속적인 훈증 효과를 무시한 결과, 이영, 목재 그리고 연결 부재가 부식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기독교의 영향은 부족 간 전쟁의 종식이었다. 이로 인해 피지의 많은 사회 계층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장인계층도 그 중 하나였다. 기독교 전파 이전, 피지 사회 내의 각 계층마다 상담 역할을 담당하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제가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집단의 일처리, 의례, 극적인 힘, 그리고 영감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피지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전통 지식과



타이레부주 다와사무 지역의 지붕 이기 모습 © 퍼시픽 헤리티지 허브

유산의 정신적 지주를 담당했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피지에서 이 탁월한 건축물은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피지가 2003 유네스코협약을 비준하자 이타우카이 언어 문화 연구소(the iTaukei Institute of Language & Culture)는 문화부와 협력하여 살아있는 인간 문화재(LHT, Living Human Treasures) 복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행하였다. 왜냐하면 이타우카이 원주민 공동체에게 있어 전통 지식은 공동체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이 복원 프로젝트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그러한 복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비탈레부 동부 주도의 타이레부(Tailevu) 주 다와사무(Dawasamu)에서 행해졌다. 최근 해당 공동체는 몰리킬라기(Molikilagi) 부레의 복원사업에 참여하였다. 몰리킬라기 부레는 남태평양대학교(South Pacific University)에 있는 오세아니아 문화 예술 태평양학 센터(Oceania Centre for Culture, Arts and Pacific Studies)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부레는 그 지역 전설에 나오는 두 명의 왕자들이 살았던 신화적 장소의 이름을 딴 것이다. 위의 사진들은 부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다. 이 부레는 변경을 최소화하여 전통적인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강의실, 회의장 그리고 대학 학술 행사의 세미나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 칼링가(Kalinga)의 팔각형 가옥

아르테미오 C. 바르보사(Artemio C. Barbosa) 국립박물관 인류학부 부장

칼링가 지역은 필리핀 루존(Luzon)섬 북부의 코오르딜레라(Cordillera) 지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500~2500피트에 이르는 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대이나 동쪽의 저지대는 향사와 배사의 지형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칼링가는 형형색색의 의상 때문에 '북부의 공작새'로도 알려져 있는 지역으로 남부 칼링가, 동부 칼링가 그리고 북부 칼링가 3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남부 칼링가는 계단식 논과 화전에서 벼를 경작한다. 지역주민들의 거주지는 200여개의 집이 모인 작은 마을들이 마치 조각보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북부 칼링가는 주민들이 화전 농업에 종사하며 6~30가구의 작은 마을이 흩어져 있다.

칼링가에는 수많은 이름이 붙여진 가옥 양식들이 존재한다. 포니(forny), 불로이(buloy), 풀롱(fulong), 부요이(buyoy)와 비날리온(binalyon) 혹은 피나리오(finario) 등이 그것인데 이 중 비날리온 혹은 피나리오라고 불리는 최상류층의 가옥인 칼링가 팔각형 가옥이 가장 유명하다. 가옥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비날리온/피나리오 양식은 소유주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이들 소유주들은 보통 판가츠(pangats) 즉,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이들 상류층 가문만이 이러한 형태의 가옥을 소유할 수 있다.

비날리온 가옥의 기본 구조는 4개의 기둥, 두 개의 대들보 그리고 3개의 마루 장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마루장선 위로 전면에서 후면으로 길게 수평재를 얹은 다음 그 끝에 바닥에서부터 기둥을 세운다. 수평재에 장붓구멍(목재를 연결하기 위해 내는 구멍)을 내어 4개의 기둥을 견고하게 끼워 넣는다. 네 개의 기둥은 두 개씩 각 각 그 위에 놓인 두 개의 쌍대공과 쌍대공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들보의 하중을 받는다. 이들 쌍대공은 정사각형 형태로 네 개의 중도리를 지탱한다. 그리고 세 개의 짧은 중도리 기둥이 서까래를 한데로 모으게 되면 서까래가 중도리 위로 휘어지게 되고 아래에서 외벽의 상부 문턱까지 고정시키게 된다. 8개의 추가기둥이 이러한 부재들을 지탱한다.

지붕의 전체 모양은 멀리서 보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휘어진 서까래는 가옥의 전면 혹은 후면에서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둥근 모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서까래는 대들보까지 바로 이어지고 그 다음 중도리까지 이어져 안정성을 확보한다. 지붕이 둥글게 보이는 것은 그 위로 돌출된 연기 배출 구멍과 풀을 엮어 얹은 이영의 두께 때문이다.

가옥 자체는 각 면이 약 6미터 정도로 거의 등변을 이룬다. 마루는 지상에서 약 1.5미터 정도 올라와 있다. 지상과 마루사이의 빈 공간은 종종 마루 아래 공간을 외부와 완전히 구분하기 위해 통나무나 다른 목재로 둘러싸기도 한다. 이는 마루를 떼어냈을 때 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루에서 서까래까지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이며 천장은 없다. 집의 출입



칼링가 옥타고날 가옥의 천장 © 레나토 라스트롤로

은 문간까지 이어지는 낮은 계단을 통한다. 문간은 나무판자를 겹겹이 차례로 겹쳐지게 하여 옆으로 밀어낼 수 있도록 하여 닫아둔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문이 열리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아래쪽에 판자만 대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듯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고 동시에 동물이 들어오는 것은 막기 위해서이다. 가옥 후면 벽에 뒷문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문이 있다. 벽은 수직 판자나 '사왈리(sawali)'라고 하는 대나무를 납작하게 엮어 만든 것을 사용한다. 마루는 기둥과 대들보의 구조에 따라 집안의 형태에 맞게 갈대를 단단하게 엮어서 깐다. 마룻바닥은 돌돌 말 수도 있으며 청소가 필요한 경우 분리해서 강에서 씻을 수도 있다.

집 안의 중앙 정사각형 공간은 네 측면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4개의 기둥과 더불어 팔각형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8개의 외주는 집의 중앙에서부터 각 기둥까지 똑같은 거리에 놓여 벽을 지탱한다. 8개의 짧은 토대판은 벽판을 끼우도록 홈이 파여 있고 이들 기둥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내주 4개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기둥이 가옥의 지지 구조를 이룬다. 이 집은 전면, 후면 그리고 양 측면의 벽 보다 대각선 방향의 네 벽이 짧고 바닥 또한 각 모퉁이에 모두 마루가 깔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정팔각형은 아니다.

부유한 가문인 박낭(baknang) 계층은 그들의 팔각형 가옥으로 차별화된다. 이들의 팔각형 가옥 내부의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선반 혹은 책장이다. 그 위에는 구시(gusi, 향아리), 봉고르(bongor, 구슬), 파나이(panay, 중국접시)와 간사(gansa, 징)와 같은 가보들을 진열해 놓는다.



칼링가 전통 마을 © 레나토 라스트롤로



몽골 전통 건축 '게르'의 건축 기술

간바타르 루프산곰보(Ganbaatar Luvsangombo) 국립몽골게르개발센터장

게르(ger)는 몽골 유목민이 창안한 전통 가옥으로 그들의 생활방식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게르는 폭풍우와 강풍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반구 형태로 지어진다. 또한 단열과 환기도 잘된다. 크기와 형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가벼워서 이동에 편리하다. 동시에 살기에 쾌적하며 건립과 해체도 용이하다. 더구나 게르는 시간과 방향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게르는 친환경적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다. 건축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지을 때 토양이나 식물의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몽골인들은 게르를 재창조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의례, 수공예 그리고 전통 풍습과 관련한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다양한 게르 제작 관습과 관련 무형유산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창조되고 전승되고 있다.

몽골 게르의 구성요소

오늘날 게르는 다음 3가지의 기본 요소로 구성된다.

- 기본골조
- 외벽덮개 부레스(burees), 천장 덮개 우르흐(örh), 단열을 위해 벽의 하단부에 놓은 펠트천 하야브스(hajavč)
- 부슬루우르(Büslüür), 사그타가(Čagtaga), 오오소르(oosor), 호של론(hošlon): 각 부재를 연결하기 위한 밧줄과 끈

기본 골조는 다음 부재들로 구성된다.

- 천장 토오노(toono): 환기와 채광을 위해 지붕 상단에 얹어놓는 목재 압축한들
- 바퀴살 운(un): 천장과 격자벽을 연결하여 지붕을 형성하는 목재 막대기
- 격자벽 하나(hana):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목재 구조물
- 출입문 하알가(haalga)
- 기둥 바가나(bagana)

게르의 덮개는 다음과 같다.

- 지붕 데베르(deever): 게르의 상부를 덮는 양털 덮개



초원 지역에 새로운 게르를 짓는 모습 © 간바타르 루프산곰보

- 덮개 투우르가(tuurga): 격자벽을 둘러싸는 양털 덮개
- 우르흐(örh): 천장을 덮는 사각형의 양털 덮개
- 방수 덮개 브레젠텐 부레스(brezenten bürees): 게르를 덮는 방수천
- 외부덮개 가두우르 카가안 부레스(gaduur cagaan bürees): 게르를 덮는 얇은 천
- 내부 덮개 도투우르 카가안 부레스(dotuur cagaan bürees): 양털 지붕덮개 아래에 놓는 얇은 천
- 커튼 호쉬이그(höšig): 격자벽 안쪽을 감싸는 천
- 하야브스(hajavč): 벽의 하단부 끝에 놓는 양털 덮개

게르의 연결부품은 다음과 같다.

- 사그타가(Čagtaga):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끈으로 강풍을 막기 위해 천장 중앙부를 단단히 고정하는데 사용
- 부슬루우르(Büslüür): 동물 털로 만든 끈이며 게르를 둘러 묶어서 격자벽을 고정한다.
- 하닌 보올트(Hanyn boolt): 접히는 벽을 연결하는 끈
- 쉬그쉬그(Šigšig): 천장의 네 측면에 달린 끈으로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데 사용
- 오르흐니 오오소르(Örhnij oosor): 천장덮개의 네 면에 달린 끈으로 천장을 부슬루우르에 묶는데 사용

게르 짓는 법

몽골 게르는 사계절 내내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생활에 최적화된 거주 방식이다. 몽골인들은 전통 천문학과 지식체계를 기초로 계절과 지형적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게르를 지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다. 그리고 천장을 비스듬히 설치한다거나 산길을 직접 마주보게 게르를 짓는 것은 금기라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일 먼저 게르를 지을 장소에 천장을 놓고 천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격자벽을 세운다. 그런 다음 벽을 잇는 끈으로 벽을 묶어 고정하고 나중에 문을 연결한다.

벽체와 문을 설치한 후 기둥을 세워 천장에 고정하고 천장을 원형 벽의 한 가운데 위로 들어올린다. 그리고 쉬그쉬그 끈으로 연결하여 천장을 벽체에 연결하여 묶는다. 천장과 벽체가 연결되면 지붕 바퀴살을 바퀴살의 꼭대기 부분을 천장 구멍으로 끼워 넣어 바퀴살 아랫부분을 벽 머리에 고정하여 설치한다.

게르의 골조가 설치되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게르를 완성한다.

먼저, 내부 덮개, 씌우개 펠트, 지붕 덮개(앞쪽을 먼저 덮고 나중에 뒤쪽을 덮는다), 방수포 덮개, 외부 덮개의 순으로 덮개를 씌운다. 덮개를 다 씌우고 나면 끈과 밧줄로 단단하게 묶어준다. 마지막으로 게르의 바닥에 펠트 깔개, 쿠션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닥재를 깔다.

아제르바이잔 예술성이 담긴 전통 주거 시설

자파르 기야시(Jafar Glyasi) 아제르바이잔 국립과학아카데미 교수

샤힌 무스타파예프(Shahin Mustafayev)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소장

아제르바이잔은 오래된 인류 주거지 중 하나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굴 주거지를 발견했다. 수세기 동안 건축가들은 이 지역에서 집을 짓는 건축적, 구성적 방법과 합리적인 설계구조와 관련한 지식과 기술들을 축적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제르바이잔의 주택건축의 발달상을 보여주는 자료는 18세기 이후의 것만 남아있다. 비록 초기 가옥의 발전과정에 대한 기록자료는 거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18, 19세기 가옥들이 과거부터 발전해온 여러 특징을 담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의 11개 기후지역 중 9개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지역의 지리적 다양성과 기후 조건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건축재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을 지닌 가옥들이 발달해왔다. 이들 가옥은 여러 종류의 돌, 구운 벽돌이나 진흙 벽돌, 목재 그리고 진흙, 석회, 기야(gyaji)라고 불리는 석회석고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회반죽을 사용하여 짓는다.

압세론(Apsheeron)반도는 여름은 길고 무덥고 강한 바람이 불며 목재가 부족한 반면 고 품질의 석회암과 진흙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은 이 지역 가옥들의 건축적, 예술적 특징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돌로 지어진 압세론의 전통 가옥은 검소하고 간결하다. 이들 건축은 돔과 궁륭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코니는 없다. 이들 건축 설계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수-아칸(su-akhan)이라는 배수구가 있는 벽감을 설계했다는 것인데 이 벽감은 목욕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반도지역에서 공식적인 의식용 건축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제르바이잔의 북동부 지역(구바-구사르 지역)의 주택들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에이완(eiwan)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생활 공간들이 모여 있다. 이들 주택의 파사드는 거리 쪽을 향한 발코니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셰키(Sheki)지역의 경우 에이완은 거의 의무



압세론 칼라 마을 단지의 문 © 파탈리 파탈리에프

적이라고 할 만큼 선호되는 주택 구성 요소였다. 이들 주택들은 높고 경사진 지붕을 지니고 있다. 부유층의 주택의 경우, 벽과 천장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벽화와 지아(석화석고) 바탕에 다양한 종류의 장식품으로 장식하였다. 셰키 지역 주택의 발전을 보여주는 건축으로는 18세기에 지어진 이 지역 건축의 걸작인 소위 '칸의 궁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반면 북서부지역(자카탈라-발라칸 지역) 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잦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집을 지켜야 할 필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부 주택이 요새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부서진 돌이나 커다란 자갈로 벽을 세우고 석회와 석회석고 그리고 진흙 모르타르를 섞어 단단하게 만든다.

카라바 산악지대의 대부분의 가옥들은 2층이다. 주거구역, 관리인 주택 그리고 발코니는 주로 중정을 향하고 있다. 슈샤(Shusha)의 거주 시설의 파사드는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셰베케, shebeke)으로 장식한다. 내부에는 프레스코와 여러 종류의 장식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건축적으로 정교하게 지어진 슈샤의 가옥들은 특히 카라바흐(Karabagh) 산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란(Arran)의 주도(主都) 간자(Ganja)에도 많은 주택들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택은 17세기와 18세기에 지어진 돔형

가옥으로, 정사각형의 택지는 끝이 뾰족한 원뿔형 돔으로 덮여 있으며 직사각형의 택지는 궁륭 천장으로 되어 있다. 구운 벽돌로 지어진 가옥의 내부는 채색된 반구형 천장과 천장을 띠 모양으로 프리즈를 둘러 예술적으로 장식하였다.

17세기와 18세기 경에 나히체반(Nakhichevan)과 오르두바드(Ordubad)에는 새로운 준도시 가옥 형태가 발달하였다. 핵심적인 건축적 요소는 여러 갈래로 통하는 현관으로 투시도를 보면 종종 6각형이나 8각형의 형태를 띤다. 이 현관을 통해 사람들은 집의 다른 구역으로 출입할 수 있다. 이 가옥들은 보통 2층이며 굽지 않은 진흙 벽돌로 지어졌다. 작은 중정에는 과실수나 포도나무 혹은 꽃을 심었다. 무성한 식물, 샘물, 그리고 작은 연못은 한여름의 무더운 공기를 시원하게 식혀준다. 오르두바드의 주택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거리 쪽을 향한 파사드의 정면 현관과 더불어 벽돌현관의 예술적 장식성이다. 아제르바이잔 남동부 렌카란(Lenkaran) 지역의 주택 또한 흥미를 끈다. 이 지역에는 1층이나 2층 가옥들로 에이완과는 별도로 또 다른 공간인 리암(Iyam)이 있다. 이 공간은 주로 여름에 방문객이나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전통 주거 건축들은 아제르바이잔의 풍부한 건축유산의 상당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건축가들의 예술적 잠재력이 찬연히 반영된 것이다.



슈샤 지역의 19세기 주택 © 파탈리 파탈리에프



예술 공동체의 자율권 확대

아나나 바타차랴(Ananya Bhattacharya) 방글라나타크 닷 컴 부소장



포트 마야에서 천연 염색법을 배우고 있는 관광객들 © 방글라나타크 닷 컴

방글라나타크 닷 컴(Banglanatak dot com)은 문화에 토대를 둔 방법론을 활용하여 친서민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본 협회가 주도한 '삶을 위한 예술 (AFL, the Art for Life)'이라는 프로젝트에 따라 인도 동부의 서벵갈(West Bengal)과 비하르(Bihar) 2개주에 거주하는 4,500명의 민속예술가들에게 사회·경제적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생계 안정을 돕고 창조적 기업을 개발하기 위해 전통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예술과 공예분야에서 전통 기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협회는 전통민속창자, 무용수, 공연단, 화가와 장인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기예를 활성화하는 일을 해 왔다. 살아있는 유산의 증진과 보호를 목표로 문서화와 시청각적 기록화 또한 수행해 왔다.

예술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표현을 필요로 하고, 표현은 감상이 있어야 한다.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공간에서 만나지 않으면 예술의 생명력과 존재는 불확실해진다. 사실 많은 전통 예술은 연행 공동체 외에는 거

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방글라나타크 닷 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제를 조직해왔다. 축제는 오랫동안 무관심속에서 홀대받던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최된다. 또한 시골지역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관객을 찾아나설 수 있도록 넓은 시장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도 하다. 예술가와 관객이 서로 교감함으로써 예술가들은 청중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열정을 생계를 위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2월에 콜카타(Kolkata)에서 열렸던 국제평화음악축제 수피 수트라(Sufi Sutra)(다음 개최일은 2014년 1월 31~2월 2일)는 폭넓은 지식과 접촉의 기회를 조성함으로써 세계의 문화적 경험을 교환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만들어 낸다. 인도의 시골지역 예술가들은 다문화적 분위기와 소통할 수도 있다. 예술가들은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하고 작업 공간에서도 교류하면서 문화적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과거 3년 간 19개의 해외 팀과 9개의 국내 팀이 참가하였는데 여기서 벵갈지역의 바울스

(Bauls)와 파크리스(Fakris)가 지구촌 관객들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전 세계로 공연을 다니고 있다. 이처럼 축제는 공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해왔다.

또한 방글라나타크 닷 컴은 관객들을 예술가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년 예술가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마을 축제를 조직한다. 이를 위해 민속예술센터를 문화적 경험의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예술가들은 방문한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도시 관객과 소통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센터는 마을 관광 홍보를 위해 워크숍, 공연, 전시 그리고 리허설 장소를 제공하였다. 지역민들은 그들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관광객들은 인류 역사의 한 조각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 오늘날 음악가들은 민속 음악가들과 합동 공연을 하거나 신화와 전통에서 지혜를 배운다. 축제는 그저 관객에게 보여주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무형유산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여성들은 서비스업과 관광객 안내를 통해 생계를 꾸려간다.

포트 마야(POT Maya)는 한때 거의 알려지지 있지 않았던 마을 나야(Naya)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이다. 나야는 파심 메디니푸르(Paschim Medinipore)에 위치한 마을로 벵갈의 파투아스(Patuas)라고 하는 두루마리그림 화가들의 중심지이다. 파타치트라(Patachitra)는 파투아스의 오래된 전통으로 구전전통이 서사적인 시각적 구성과 만나 형성된 독특한 문화유산이다. 예술가들은 파투아스의 이 유명한 주거지역으로 국내외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이제는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다음 포트 마야는 2013년 11월 22일~24일에 개최되며 다시 한번 예술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수많은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 또한 천연염료추출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워크숍도 열리며 여기서 여성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결국 문화가 이끌어낸 자율권을 얻게 된다.

또 다른 여성의 자율권 쟁취 사례는 이름의 기원으로 볼 때 원조적인 마드후바니(Madhubani)로 알려진 미틸라(Mithila) 회화 전통일 것이다. 이는 이 전통이 가장 잘 연행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예술은 미적 취향, 종교적 교훈, 자연과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펼쳐지는 전경 등을 담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심리(Simri) 마을에 사는 400명의 화가 대부분은 여성들로 이들은 예속과 가난, 성차별 등 지난한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들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오면서 마침내 그들의 예술적 기량으로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마드후바니 축제는 2013년 10월 4일에서 6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며 그들이 일구어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서벵갈의 나디아(Nadia)지역에 위치한 고르방가(Gorbhangha) 마을에서 열리는 파키리 옷사브(Fakiri Utsav)는 감미로운 음악 제작자들을 위한 축제이다. 매년 1월 셋째 주가 되면 파키리 옷사브가 열리는 고르방가는 바울(Baul), 파키리(Fakiri) 그리고 파우와알리(Qawwali) 음악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2014년 1월 17일~19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서 방문객들은 평온함과 간결함 그리고 마을 사람



수피 수트라 축제의 수피 공연 © 방글라니락 닷 컴

들의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축제는 문화 교류와 협력에 이르는 관문으로서 음악 관광을 촉진한다.

색채와 봄을 기리는 바산타 옷사브(Basanta Utsav)는 푸룰리아(Purulia)에서 매년 개최되는 홀리(Holi) 축제기간 동안 열리는 경이로운 행사이다. 다음 홀리 축제는 2014년 3월 16일에서 18일까지 열린다. 푸룰리아(Purulia)는 이 지역 원주민들의 정통 민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활기찬 춤의 형식을 가진 차우(Chau)와 자연의 혜택과 더불어 성립된 다양한 유산은 이 지역을 벵갈의 문화지도 위에 새로운 좌표로 새겨 넣었다.

이들 축제는 축제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특징 없는 농촌 경관에 새로운 문화지리에 대한 확실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술가들은 외부인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삶과 예술에 대한 관점과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지위를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 인식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왔다. 사회적 연대는 다원성을 증가시켰으며 문화유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이들

문화유산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후속적인 효과로 또 다른 2,000명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다. 더 나아가 소외되었던 공동체들은 점차 예술 노동자에서 예술 기업가로 변화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발전 과정에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 임금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야 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이농현상도 줄어들게 되었다. 주 정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문화기업과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마드후바니 축제의 차우 춤 © 방글라니락 닷 컴



Inventory-Making Efforts

라오스의 무형유산 목록 작성

비엠헌케오 수크사밧디(Viengkeo Souksavady)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문화유산국 부국장



예곡 공연 전 행해지는 의식 © 라오스 문화유산국



예곡 인형 © 라오스 문화유산국

라오스는 문화가 국가 생존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는 사회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자 최종 목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라오스의 격언에 '문화는 국민임을 입증하고 행동은 누군가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문화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민을 잃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라오스 정부는 문화관련 문제를 국가의 문화 보존과 증진 및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세우는 근간으로 간주한다. 최근 정보문화관광부는 '문화가족 모범사례'와 '문화촌 모범사례'를 전국의 공동체로 확대하고 홍보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의 번영과 모두를 위한 생활수준의 향상
- 공동체에 안전, 정의 그리고 조화라는 호의적 환경 제공
- 유서 깊은 전통의 보존
- 국가 정체성의 배양

이 프로그램에 수반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저개발국이라는 현 상황에서 한 단계 발전
- 빈곤퇴치
- ASEAN의 사회·문화적 토대 구축에 기여
- 아시아의 정신과 정체성을 보존함으로써 아시아의 문화 발전에 참여

이미 두 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유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 외에 무형유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왔다. 비록 무형유산관련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2005년 의회에서 채택된 국가유산법에는 국가유산은 유형과 무형 유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형유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무형유산은 민속, 지식, 대중적 통념, 신앙,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과 생활방식을 반영한 좋은 관습과 전통, 언어, 문서, 숫자, 신화, 전설, 설화, 속담, 시, 음악, 전통 무용, 음률, 가사, 전통의학 그리고 세대 간 전승되어 온 기타 형태의 지식 등 가치 있는 문화적 자산을 구성하는 비물질적 생산물을 포함한다. (라오스 국가유산법제 9조)

라오스는 2009년에 2003협약 당사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핵심기

관이 부재하다. 2007년에 문화유산국 하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관련 당사자들을 조율하기 위해 무형유산분과가 설치되었다. 이것이 전국적인 무형유산 체계의 출발점이다.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라오스의 문화유산국은 한국 문화재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와 유네스코 방콕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형유산협약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2012년 정부는 국립무형유산보호위원회로 명명한 국가자문단을 임명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보문화관광부의 관련 부처와 기타 공공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6월에는 비엔티안(Vientiane)에서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2003협약 이행에



갑 음엄 노래 © 라오스 문화유산국

관한 국가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센터의 지원으로 2012년에 시작된 시범 프로젝트 '라오스 무형유산 보호체계구축' 덕분에 무형유산 분야의 한 팀은 무형유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 비엔티안과 루앙 프라방(Luang Prabang)에 현지조사를 나가 지역 공동체와 자치단체를 만났으며 동 지역의 문화유산 종목의 기록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무형유산 목록화 작업은 여전히 시작단계에 있다. 라오스에는 발굴하고 기록해야 할 다양하고 풍부한 무형유산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있지만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에서는 우선 두 가지 분야, 즉 공연예술과 전통 공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연예술분야

라오스 북부의 두 공동체가 전통민속음악과 인형극 보유자이다. 이 분야의 첫 번째 종목은 '깍 응엄(Khab Ngum)'이다. 이는 타이 푸안(Tai Phuan)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인 민속음악으로 특히 타이 푸안족은 씨엥

꾸앙(Xieng Khuang) 지역에서 기원하여 현재 대부분은 비엔티안과 남 응엄(Nam Ngum) 계곡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깍 응엄은 비엔티안 지방의 대표적인 살아있는 무형유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형극 혹은 '에폭(Epok)'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실 의식 행사와 관련 있다. 씨엥통(Xiengthong)마을과 루앙푸라방 단 두 지역만이 아직까지 이 종목을 연행하고 있다.

전통 공예

이 분야의 첫 번째 대상 종목은 바구니 짜기이다. 대나무와 등나무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짜는 것은 라오스인들의 매우 오랜 수공예 기술이다. 열흘간 무형유산 팀은 나양(Nayang)과 폰(Phon)마을, 폰 홍(Phon Hong)지역, 비엔티안 지역의 공동체들과 함께 조사작업을 하였다.

이들 종목의 목록화는 2013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인형 공연단 © 라오스 문화유산국



폰 홍 지역의 바구니 세공품 © 라오스 문화유산국



비엔티안 지방 폰 홍의 바구니 만들기 © 라오스 문화유산국

베트남 무형유산 영상기록 사업



응아이꺼우 지역의 카추 연행자와 무형유산 전문가 © ICHCAP

무형유산은 그 원형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영상기록은 어떠한 종목이 진행되는 순간을 포착하여 기록함으로써 무형의 유산을 유형의 영상물로 남기고 미래에 전해주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에는 지난 2012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응아이꺼우 지역에서 카추 연행자들과 그 공연을 기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현장 영상기록 작업에는 한국의 다큐멘터리 전문가와 베트남음악연구소 및 무형유산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베트남의 공연예술 카추 창악

베트남의 카추 창악은 11세기에 시작되어 15세기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진 공연예술이다. 궁정음악이자 종교음악으로 역할을 해온 카추는 민간에도 널리 퍼져 각종 축하의 자리에서 연행되어 왔다. 주로 세 명의 연행자가 공연하는데, 여성 가장자가 노래하면서 파익이라는 타악기를 연주하고 전통 현악기인 단다이를 연주하는 악사와 쯔쩌우라는 북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함께 공연한다. 한 연행자의 말을 빌리면 카추가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도 아니라고 했을 만큼, 베트남에서 카추는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겪으면서 카추 연행자들이 점차 연로해지

는데 반해 이를 계승할 사람들은 줄어들면서 카추는 전승에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카추를 유네스코의 긴급보호목록 등재하기로 결정하고, 몇 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등재가 결정되었다.

연행 공동체를 담은 기록

본 영상기록에서는 응아이꺼우 지역의 카추 공동체를 영상에 담았다. 유명한 카추 예술가인 응우옌 티 쭉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공연하는 장면들을 촬영했다. 응우옌 티 쭉 선생은 응아이꺼우 마을에서 손녀들과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노래를 후대에 전승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추 예술가인 단다이 연주자 응우옌 푸 더 선생이 하이즈엉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그는 전쟁 등으로 단다이를 연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항상 자기 전에 그 가락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을 만큼 카추가 자신에게 소중한 음악이라 말했다. 지금은 몇몇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모두 생업으로 바쁘기에 금방 실력이 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카추가 사라질까 두렵지만 그래도 전승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카추라는 무형유산이 베트남 연행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

카추 영상기록 작업의 의미

이번의 영상기록은 카추의 역사나 음악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보다는 연행자의 관점에서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행자의 인생에서 카추가 갖는 의미와 다음 세대와의 소통에 대한 생각을 주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작업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카추 음악 촬영에서는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HD급의 고화질 기록물을 얻을 수 있도록 했고,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15분 분량 단편영상과 공연 장면을 주로 엮은 40분 분량의 연주본도 함께 제작해 영문 자막본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베트남 추가 영상기록 작업

카추 음악 영상기록 작업 외에도 센터에서는 베트남음악연구소에 예산 일부 지원을 통해 베트남 라 지역의 수상인형극과 갑삭 무속 의례를 촬영하도록 지원했으며, 2013년 말까지 베트남 측으로부터 완성된 영상물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에서는 카추 창악과 베트남음악연구소에서 촬영한 두 종목의 기록을 묶어 베트남의 무형유산 영상기록 선집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영상기록 작업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높이고, 공동체 안에 살아 숨쉬는 무형유산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지은(연구정보팀)



카추 창악 공연장면 © ICHCAP



이란 피신 파주 문화예술연구소

모하마드 레자 미리(Mohammad Reza Miri) 피신 파주 문화예술연구소 소장

피신·파주 문화예술연구소는 1997년 이란 문화이슬람지침부로부터 필요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고학자들이 설립한 단체이다. 이란에 대한 연구, 특히 고고학과 인류학적 관점의 연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이란의 문화유산 당국이 점차 민간영역과 협력관계를 맺기 시작하던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최초의 NGO라는 명예를 지니고 있다.

연구소는 설립 첫해에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란 문화유산 수공예 관광협회와 이란 문화이슬람지침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의 관심을 끄는 일에 상당한 노력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이는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따른 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연구소의 활동은 크게 조사연구, 출판 그리고 수집 및 전시 세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상당한 공헌을 해왔다. 다음 내용은 무형유산과 관련한 활동만을 제시한 것이다.

아래 언급한 성과들은 인류학연구센터와 이란 문화유산 수공예 관광협회와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달성하였음을 밝혀둔다.

1. 민족지(다른 유·무형유산적 특징 속에 나타나는 의복, 음식, 의례 및 언어에 대한 현지 조사)

- 찰루스(Chalus), 노샤르(Noshahr), 누르(Nur): 이란 북부 마잔다란 (Mazandarn) 지역
- 사베(Saveh), 자란드(Zarand), 코메이잔(Komeyjan): 이란 북중부 마라카지 (Marakazi) 지역

2. 주요도시의 민족지학적 연구조사

1단계: 이스파한(Isfahan)

20명의 인류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40일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2008년 이스파한이 이슬람 세계의 수도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그 결과물로 이스파한 지역과 주민들에 관한 5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통 경기와 놀이 활동
- 아르메니안 의상
- 전통 의학
- 아르메니안 묘비석
- 이란 언어지도: 원리와 방법론(저자: 야돌라흐 파르마운 박사), 이 책은 이전의 언어학적 기록 활동을 토대로 완성되었다.

3. 전시

이란 문화유산주간을 맞이하여 이란의 의례와 의복에 관한 두 번의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각 전시회는 열흘간 열렸으며 약 사십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4. 무형유산 선언

연구소는 이란 언어지도국가사업의 의장이자 테헤란 무형유산센터소장인 야돌라흐 파르마운 박사의 초청으로 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서 연구소는 이란의 언어지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목록 등재를 포함하여 무형유산 분야에서 거둔 기타 성과들을 발표하였다.

5. 이란언어지도(국가사업)

이란 전역의 무형유산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이란 언어지도사업 시행을 제안하였다. 사업 제안 직후, 해당 사업은 즉각 승인되었으며 이란 문화유산 수공예 관광협회 조사연구소(RI-ICHHTO)가 지원하였다.

35년에 걸친 언어적 기록과 정확하게 계산한 프로그래밍을 토대로 컴퓨터화된 언어 지도로 표현해내는 이 사업은 우선 언어학적 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30명의 언어학 석·박사들로 구성된 팀 구성원들은 한 달간의 워크숍에서 야돌라흐 파르마운 박사에게서 처음 교육을 받았다. 자료입력의 첫 단계에서 10,000개의 음성 인터뷰 기록을 국제음성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프로젝트 개요

- 업그레이드와 장애요소 제거
- 기록화가 필요한 지역의 언어적 자료 수집
- 자료입력: 수집된 언어적 자료의 필사본으로 한정

- 프로젝트 아카이브의 설립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사업목적

- 이란의 언어적 현상의 지도화
- 다양한 이란 언어 발굴
- 소멸위기에 처한 이란 언어 발굴
- 이란의 언어유산 기록화
- 이란 전역에 걸친 가시적이고 해석적인 언어 지도 마련
- 이란 전역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언어유산의 존재를 입증하여 국가적 통합 강화

사업 추진 기관

- RI-ICHHTO
- 언어유산 관련 교육 및 연구협회
- 언어기획자
- 이란 주요 정부의 문화 프로그래밍 분야
- 유네스코 무형유산분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란의 문화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란 과학연구기술부 특히 이란의 종합적 과학 지도제작에 참여한 관계부서들

사업 성과

사업 첫 단계 시행이 끝날 무렵, 본 사업은 이란 대통령 직무실 기술 부서에 의해 이란 내에서 시행한 가장 탁월한 30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사업시행자 즉, 피신·파주 문화예술연구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민간연구소로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은 2010년 시모르그(Simorgh) 전시회에 참여하였으며 의회의원, 정부 관리와 같은 저명한 정부 인사와 일반 시민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란 민족의 의복 전시회 © 피신 파주 문화예술연구소



2003 협약 10주년 기념 중국 청두 회의

10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청두 국제회의의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 전문가 패널 © ICHCAP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채택 이후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협약 가입국들은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협약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각각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왔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 청두 국제회의(Chengd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elebration of the Tenth Anniversary of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가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태무형유산국제훈련센터(CRIHAP)와 유네스코 본부, 국립무형유산센터, 청두시, 쓰촨성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회의에서는 2003년 협약 채택 이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각국에서의 협약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리나 보코바(Ms. 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중국 문화부 차관, 쓰촨성 주지사 및 청두시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3년 협약 당시의 주요 관계 인사들과 현 유네스코 본부의 무형유산 담당자, 그리고 국제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발표 없이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다섯 개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되었다.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은 '협약의 성과: 무형유산 담론의 변화 및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자넷 블레이크(Ms. Janet Blake)

가 좌장을 맡았고, 안토니오 아란테(Mr. Antonio Auguato Arantes), 크리스틴 쿠마(Ms. Kristin Kuuma), 고이치로 마츠우라(Mr. Koichiro Matsuura)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2003년 협약이 지금까지 유형유산에만 한정되어 있던 국제사회의 관심을 무형유산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점과, 전례 없이 빠르게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은 '목록작성 및 리스팅'이라는 주제로 노리코 아이카와(Ms. Noriko Aikawa)가 좌장을 맡았고, 클로딘-오제 앙귀(Ms. Claudine-Augee Angoue), 솔다 뮈지가 배일리(Ms. Soledad Mujica-Bayly), 마그네 벨루에(Mr. Magne Velure)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협약의 주요 제도 중 하나인 '리스팅(listing)' 제도가 과연 무형유산의 보호라는 협약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목록화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들은 목록화 제도가 무형유산 목록 등재에 대한 지나친 경쟁 과열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부분 있다고 인정했지만, 무엇보다 무형유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은 '수평적 세계: 지역자산, 세계유산, 그리고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라는 주제로 릭 스미스(Mr. Rieks Smeets)가 좌장을 맡았고, 무니르 부쉬나키(Mr. Mounir Bouchenaki), 알리산드라 커민스(Ms. Alissandra Cummins), 웨리프 카즈나다(Mr. Cherif Khaznadar), 벤드 벤드랜드(Mr. Wend

Wendland)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본 세션에서는 2003년 협약을 다른 협약들(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 등)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여러 협약들이 때때로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기존의 여러 협약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조화롭게 작용하여 무형유산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세션은 각 협약 가입국들의 무형유산 보호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일본, 요르단,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터키, 이란, 캄보디아 등 각국 대표들의 국가보고서 발표를 통해 각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주로 '문화와 발전'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세실 듀벨(Ms. Cécil Duvelle)이 좌장을 맡았고, 로데즈 아리즈페(Ms. Lourdes Arizpe), 마크 제이콥스(Mr. Marc Jacobs), 루핀티엔(Mr. Lu Pintian)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문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무형유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이 외에도 환경문제,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제정치, 평화 유지 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참가자들은 자연 및 우주에 대한 전통 지식들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문화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회의 결과로 청두선언문(Chengdu Recommendation)이 채택되었으며 참가자들은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교훈삼아 계속해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쓸 것을 다짐하였다.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 기념 청두 국제회의'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민영 (연구정보팀)



[부탄] 공동체 기반의 무형유산목록화 워크숍

지난 2013년 4월 2일에서 9일까지 부탄 남부의 국경마을 폰트쇼링(Phuntsholing)에서 공동체 기반의 무형유산목록화를 위한 유네스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유네스코와 일본신타기금이 재정 지원을 하였다.

부탄은 근대와 고대의 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역 공동체들은 예법과 개인의 이름, 나라의 복장 규정에서 종교 축제에 이르기까지 부탄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2005년에 2003협약 당사국이 된 이래 부탄은 무형유산 보호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이의 보존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부탄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 워크숍은 유네스코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문가를 비롯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무형유산 보호책임자를 지고 있는 고위급 관리들, NGO, 공동체기반의 협회, 종교협회 그리고 무형유산 관리인 및 공동체 등 이해 당사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위에 언급한 시범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공동체 기반의 무형유산목록화 작업의 모범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출처: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부탄 워크숍 © 부탄 국립 박물관 아카이브

[타지키스탄] 유네스코 협약이 강조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타지키스탄의 전통

지난 201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 외무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국가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차 유네스코

훈련워크숍이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나흘간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담당하는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카자흐스탄 소재)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타지키스탄위원회가 지원하였다. 이 워크숍은 정부 및 교육기관, 공예와 전통 음악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03 협약의 국제체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에 무형유산 종목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얻게 되었다. 또한 무형유산 보호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관련 활동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으며 국제지원현황 및 지원형식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훈련기간 동안, 정부는 무형유산국가위원회 산하 전문가 실무진을 조직하였다. 구성원은 협약에서 규정하는 모든 분야를 대표하는 훈련 참가자들로 구성되었다. 참가자 대부분은 문화정보연구기관 종사 경력에 있는 실무진이 주를 이뤘다.

[출처: 유네스코 알마티사무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예술문화축제 주간

2013년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살라티가(Salatiga) 소재의 사티아 와카나 크리스찬 대학(SWCU, Satya Wacana Christian University)에서 예술문화 축제 주간이 열렸다. 매년 이 대학은 인도네시아 내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공유함과 동시에 학생들 간에 관용의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예술과 스포츠를 통한 문화 다양성의 통합과 하나 되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3년 축제는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전통 무용, 음악, 밴드, 음식 그리고 수공예품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재학생들은 재학생을 병용 활용하여 5미터 길이의 그림자 인형 외양구농간(Wayang gunungan)을 제작하는데

참여하였다. 이 모형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기록 박물관으로부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네스코 자카르타 문화 자문위원인 앤드류 헨더슨은 폐회사에서 인도네시아는 발전에 있어 문화의 힘과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들을 선두에서 주도해온 국가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주창된 국제 행사인 세계문화포럼(World Culture in Development Forum) 발전에 참여해왔다. 이 포럼은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와 복지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문화를 보존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해 왔다. 차기 포럼은 2013년 11월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유네스코 자카르타사무소]

[미크로네시아 연방] 압의 살아있는 유산 보호 워크숍

필롱(Pilung), 타몰(Tamol), 그리고 압(Yap) 정부 위원회 대표들과 압의 무형유산과 관련되거나 관심이 있는 다수 지역 전문가들이 '압의 살아있는 유산 보호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워크숍 첫 이틀 간은 주지사 세바스티안 아네팔(Sebastian Anefal)의 환영사, 미크로네시아연방(FSM,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역사보존사무소(HPO,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소장대리 아우구스틴 커홀러(Augustine Kohler)의 미크로네시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인준과 현황 보고, 유네스코 아피아사무소 아카츠키 다카하시 박사의 무형유산 프로그램 개요, 압의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압 여성협회(YWA, Yap's Women's Association)와 여성이단체(Women's Interest Group)의 수공예품 전시회도 열렸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무형유산 프로그램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무형유산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지역 언어로 된 용어를 찾는 것이었다.

마지막 활동은 가능한 많은 압의 무형 유산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실제로 무형유산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출처: 유네스코 아피아사무소]

[몽골] 무형유산 공동체 기반 목록 작성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울란바토르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위한 몽골의 역량구축'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와 일본신탁의 재정지원을 받아 '무형유산공동체기반 목록화' 워크숍이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무형유산 유네스코 대표목록 및 긴급목록 등재신청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종목을 목록에 등재했을 경우의 혜택과 협약 당사국으로서 몽골이 담당할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문화관광체육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 국제아태무형유산 연구센터, 중국 예술 아카데미, 도쿄국립정책학대학원연구소 그리고 싱가포르 밀로우(Milou) 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 보유자, 연구자, 몽골 21개 지역 무형유산 담당 관리들이 참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신간 '우즈베키스탄의 응용미술: 전통과 혁신' 발간

지난 2013년 5월 21일에 유네스코 타슈켄트사무소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응용미술: 전통과 혁신'이라는 신간 발표회가 열렸다.

유네스코는 2003년 협약의 이행뿐만 아니라 국내외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보호 증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무형유산을 홍보해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10년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한 창조산업개발-우즈베키스탄 수공업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

탄의 전통 수공예 특히,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과 페르가나(Fergana) 지역 지역의 전통 수공예의 보호, 개발 및 증진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위에 언급한 한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간되었으며 학술원 회원 아크바 카키모프(Akbar Khakimov)가 수행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책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오늘날의 환경에 맞게 전통을 잘 활용하고 있는 주요 장인들의 경험과 우수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또한 새로운 기예, 기술 그리고 디자인을 전통 수공예에 잘 접목시킨 현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작품에 대한 전례 없는 성찰이 담겨 있다.

[출처: 유네스코 타슈켄트사무소]

[대한민국] 전통 공예명품전



전통공예명품전 포스터 ©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문화재청과 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KPICCA)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CHF)이 지원한 제33회 전통공예명품전이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전통공예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100여명의 무형유산기능보유자와 각 종목별 대표 공예작가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우리 전통 공예의 진면목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완전히 숙련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한국의 전통 공예품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전시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전통 공예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 중 하나이며 각 작품작은 사람들이 전통 공예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 2003 협약 1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03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문화예술학연구소(문화체육관광부 산하)는 꽝남 인민위원회(Quang Nam People's Committee)와 유네스코 베트남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10주년: 경험, 교훈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주일간 열린 ASEAN 세계문화유산 축제 기간 중 6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회의를 통해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뉴스레터 16호부터는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혼용되었던 '무형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이란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통일해서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ICH COURIER

한국어판 2013년 7월

발행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주소

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전화번호 042-820-3501~18

팩스 042-820-3500

이메일 info@ichcap.org

웹사이트 www.ichcap.org

발행인 이삼열

편집자문위원 김홍남, 알리셰르 이크라모프, 모에 치바, 헤수스 페랄타, 타카하시 아카츠키

편집장 박성용

편집 차보영, 안우진, 이세민

번역/윤문 민태혜 / 차보영, 안우진

디자인/인쇄 예맥

ISSN 2234-2109

ICH Courier는 www.ichcap.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ICH Courier는 재생용지를 활용합니다.